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9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에서는 선명상을 비롯해 각종 체험의 장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70돌 중신회, 시민과 광화문광장서 선명상

9월 20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7000여 시민과 선명상 법석 열어
진우 스님, 5분 선명상 실참 '눈길'
정원주 회장 "100년 준비 출발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올바른 신행문화를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의 통합사회를 일구겠습니다. 선명상 대중화로 국민 모두가 마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앙신도회)가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선명상 실천을 통해 이 시대 국민들의 정신문명을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신도회는 9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과 중앙신도회가 주최하는 '행복바라미'는 2013년부터 시작, 13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들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기 위해 '선명상'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불자와 시민 7000여 명이 동참했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자리한 광화문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불자들이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은 이 땅의 중심에서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펼쳐 나가겠다는 굳은 서원"이라면서 "온갖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춰 호흡을 바라보고 내면을 성찰하며 함께 자비심을 나누는 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70년 동안 중앙신도회는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신도들의 마음에 평화를 전하는 큰 역할을 해 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는 중앙신도회장 소임 당시 광화문에서 진행했던 행복바라미 행사들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명실공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적 단체로 전국 신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음에 마음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는 새로운 도약의 자리기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축사 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 명상 실참을 진행했다. 7000여 불자와 시민들은 도심 속에서 5분 동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내면에 집중하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체험했다.

실참 후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선명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불자뿐 아니라 종교와 이념을 넘어 누구나 선명상으로 스스로 평안해 질 수 있다"면서 "모두가 선명상을 통해 자비행, 자비심을 가진다면 세계가 정토가 되고 극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5초 선명상, 5분 선명상, 쉘패스 선명상, 무시로 선명상 등을 통해 사회가 밝아지고 모두가 평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발원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10대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각 세대 대표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한국불교 100년의 미래를 위한 선포식에서는 일곱가지 실천다짐이 깨달음의 빛이 돼 세상을 환히 밝히길 염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선명상을 비롯해 각종 불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동참자들은 한국불교 100년 미래를 위한 선포식을 통해 실천다짐이 세상을 밝히길 염원했다.


7000여 불자와 시민들은 5분 동안 모든 것을 멈추고 내면에 집중하는 '선명상'을 체험했다.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선명상을 통해 모두가 평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발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사진 가운데)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선명상을 하는 모습.


불교 뮤지컬 '리파카 무량' 등 공연도 이어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복바라미 정신이 평화의 씨앗"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선명상 실천을 통해 이 시대 국민들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 행복바라미의 정신을 계승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되새기고자 합니다.

온갖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고, 내면을 성찰하며, 함께 자비심을 나누는 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이는 고요한 숨과 마음은, 결코 개인의 평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와 세계를 향해 퍼져 나가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를 일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70년 역사의 중앙신도회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탈종교화, 인공지능 시대 속 국민들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상생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선명상이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심어주고, 우리 사회에 밝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극장된 사찰…'국제불교영화제' 성료

9월 20일, 서울 조계사서 폐막
"깊고 풍성한 불교영화" 기대

8월 23일 구례 화엄사 사성암에서 개막한 국내 유일 불교 영화제 '2025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약 한 달간의 대장정 끝에 9월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막을 내렸다. 5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처음으로 영화관이 아닌, 전국 사찰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111개국에서 1637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최종 16개국 20편이 관람객과 만났다. 개막작 '총을 든 스님' 상영을 시작으로, '스노우 레오파드' '성스러운 돌' 등 작품들이 선보였다. 영화제의 대미는 신동일 감독의 '문경'이 장식했다.

제5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올해 영화제는 권역별 주요 사찰과 연계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불자, 대중과 함께했다"면서 "불교영화를 통해 자비와 힐링과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더 깊고 풍성한 불교영화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송일곤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가 평화와 자비 정신을 확장하는 국제적 불교 대중화를 이루는 데 역할을 하길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국제불교영화제는 9월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폐막했다. 폐막작 '문경' 관람 모습.

제54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하오며,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꽃처럼 피어나 수행하며 교화하고 계신 2천여 동문 스님들을 그리운 운문의 도량으로 초대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또한 역대 동문 스님들의 숙원이었던 동문회 회칙도 제·개정하오니 동문 스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불기2569(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오후1시**
장소 **운문사 선열당**
주최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문의 054)372-8800(운문사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석일 합장

